



일제강점기 광주면사무소, 군청 등 광주의 관공서가 집적돼 있었던 구시청길 일대(광주천~구시청 4거리). 하지만 1930년대 초반까지 이 도로마저도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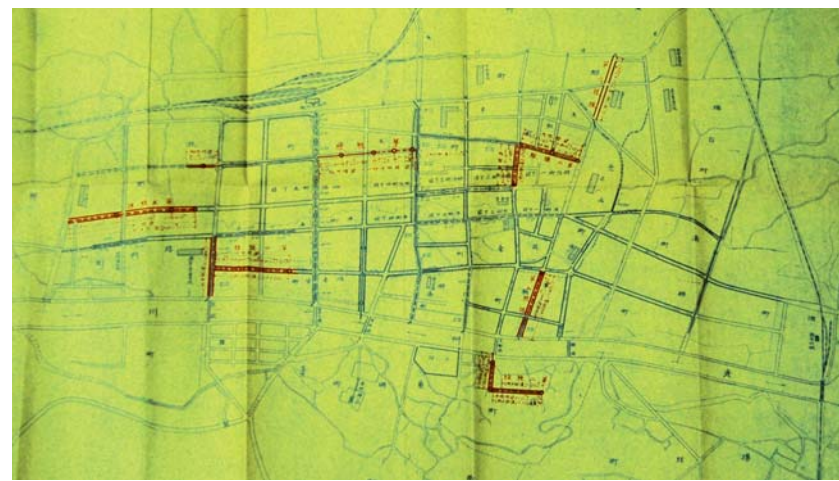
하수도 태부족...비만 오면 시가지 오폐수 광주천으로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12. 도심 하수구로 변질되는 광주 물길



1935년 당시 광주하수 일반 평면도. 1930년대 광주는 1차 하수시설공사(1926~1928년)로 설치된 4개의 간선과 광주천에서 주택지와 중심가, 관공서 등에 지선을 놓거나 간선을 연장하는 공사를 계속 벌였다. 그러나 하수의 혜택은 주로 일본인 거주지역에 집중됐다.



1930년대 광주읍성 전경.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곳부터 하수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광주는 물길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비옥한 농경지를 자랑했던 곳이다. 이 물길들은 대부분 무등산 주변에서 발원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은 물론 오염 물질을 분해·정화하는 역할도 했다. 이 '자연 시스템'은 적어도 일제가 광주에 진출하기 전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수초와 늪 사이를 지나는 물길의 특성, 굽이굽이 긴 연장 등으로 광주천과 그 지천의 자연정화능력은 적정 수준의 인구를 포용하기 충분했다.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은 1896년 8월4일 지방관제개혁 조치로 나주에 있던 전라남도 관찰부가 광주로 이전하고, 1897년 7월30일 목포항이 개항되면서부터다. 광주가 행정중심도시로, 또 수도 경성과 개항장인 목포를 연결하는 중추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곧 준비 안 된 '인구 급증'과 동시에 과거 전혀 없었던 인위적

후 신규 설치된 도로는 양 가장자리에 하수구를 만드는 근대적이었지만 그 외 시가지 도로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비만 오면 골목마다 빗물과 하수가 뒤엉켜 지저분해지고, 수도가 개통되기 전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우물도 오염됐다. 1917년 광주지방사정이라는 책을 남긴 일본인 기타무라 유이치로(北村友一)는 이 같은 1910년대 광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비가 내리기만 하면 도로는 흙사 작은 하류를 이루고 (상수도 공사가 진행중인데) 상수도가 완성되고 나면 하수도가 없는 광주는 마치 사람에게 입과 위는 있으나 장과 항문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국 또한 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였지만 막대한 예산 탓에 하수도 설치의 계속 늦춰졌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26~1928년 광주면 결산서를 보면 하수구 신설을 위해 1926년 3만6000원, 1927년 4만9800원, 1928년 3만7176원 등이 3년간 12만 2976원이란 '거금'을 쓰고 있다. 조선총독부와 전라남도로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움받긴 했지만 광주면도 전체 사업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물론 이는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빚이었다. 이자율은 4.9~5.4%였고 원금과 이자

로 1938년까지 갚아나가야 했다. 광주면은 하수도만이 아니라 수도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또는 확장, 그리고 재해복구 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조선식산은행, 조선간이생명보험 등 금융기관은 물론 전라남도로부터도 차입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광주면은 1937년까지 무려 66만7145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어렵사리 광주에 들어선 기반시설은 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1926년 11월8일자 동아일보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하수시설이 비교적 잘 설치됐지만 한국인 거주지역, 특히 양림리와 향사리 일대는 비만 오면 하수가 넘치고 교통이 두절됐으며, 그로 인해 면협의회 선거에서도 지역 내 현안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최초의 광주 하수도는 지금의 옛 적십자병원~대인시장~동계천 구간(A간선), 옛 전남공고~전남도청~대인동 4거리(B간선), 풍계천~누문천(C간선), 중앙로~금남로~수창

초교(D간선) 등의 간선과 광주천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주택과 건물 등을 연계해주는 지선이 놓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하수구 외에 광주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 즉 소학교(중앙초교) 인근과 총장로(본정동) 등에 하수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하수구는 개거식(뚜껑이 없는 수로)과 암거식(지하 매설 또는 하천 복개)이 있었다. 앞서 C간선과 광주천이 종으로, 나머지 간선과 지선이 횡으로 엮여가며 광주의 하수구를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1차 하수시설의 연장은 1557.22km, 즉 2.83km였다. 1933년부터는 1차 하수시설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공사가 계속됐다. 일제는 도시 빈민들을 도로, 하수, 항만,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하는데, 이를 '국민구제 토목사업'이라고 했다. 이 사업에는 예산의 64%가 국고에서 지원됐으며, 광주 역시 투입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연장을 국민구제 토목사업으로 추진했다.

1935년 광주읍은 제1호선~제6호선까지, 즉 금동, 호남동, 황금동, 남동,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 일대의 지선을 설치하는데 모두 4만7500원의 예산을 들였다. 이는 193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연장에 모두 25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광주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후에도 지선을 연장하는 공사는 해방 이전까지 계속되고 있다. 광주부로 승격된 뒤 1936년 광주는 무려 8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수정했고, 필요한 하수시설이 약 1만1350m, 개거 1600m, 측구 5만2500m에 달한다고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다.

해방 이후 광주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난 1933년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38년간 광주는 일제의 이 하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개·보수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즉 위생처리장은 1975년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 최초로 설치됐다. 일제의 도시기반시설 중 이 하수시설이 가장 늦게 완성됐으며, 따라서 광주천 등 도심 하천 오염 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석기자 chadoll@kwangju.co.kr

광주면→시 급성장 과정 인구 급증·불균형 개발

특하면 하수 넘쳐 교통 두절...지역내 현안 대두

日, 막대한 예산 탓 하수처리시설 가장 늦게 설치

개발의 서곡이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미 호남의 중요도시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원, 전주, 나주 등과 앞치락뒤치락하는 정도였다. 일제는 개항장인 목포에 이어 내륙 거점인 광주에 '포인트'를 뒀으며, 따라서 광주에 모든 근대시설을 집적시키기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광주 시가지 인구 관련 통계를 정리한 결과 1908년 2019호 7283명이었던 인구는 20년 만인 1929년에는 5514호 2만500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해방 직후인 1946년 시가지 인구는 10만2000명이었다. 시가지인 광주면이 읍에서 부, 다시 시로 승격하면서 주변지역을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급성장은 넘쳐나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수돗물이 첫 개통된 1920년 이후 5년만인 1925년 숙원사업인 하수도 설치 실시계획에 착수하고 1926년부터 3개년에 걸쳐 12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1910년 완공된 경복선(경성~목포) 목포~광주 구간 등 한일강계별합

▲도움말 주신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